

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3사 순례법회

대구 동화사(주지 성덕)는 5월5일을 맞아 3사 순례법회를 실시한다. 이번 3사 순례법회의 순례지는 공주 마곡사, 갑사, 무량사 등이며 동참금은 2만5천원이다. (053)982-0101

도정스님은 "국가적 경제위기로 실직자와 점심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해 굶는 학생들이 하루에도 수천명씩 양산되고 있다"면서 "자비의 가르침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실천하는 불제자가 되자"고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진각종

금산사 예수재·수륙재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15일 익산 미륵사에서 교구 합동 생전예수재 및 수륙재를 봉행한다. 이어 4일 전북예술회관 2층 전시장에서 개산 1400주년 김정호 서예전시회를 열었다.

불교방송서 신형상담

종단원(원장 성초)은 10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불교방송(FM101.9) '종단의 시간'을 통해 신형상담을 한다.

태고종

종단주최 예수재 봉행

종단원(원장 인곡)은 6월 28일 봉원사에서 종정 보성스님, 국민회의 김상현 고문 등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예수시왕생전제를 봉행했다. <사진>

종단주최로 열린 이날 예수시왕생전제는 전통의식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인천·경기 사암 주지 및 신도들이 참여했다.

전대종

전국청년회 하계수련회

제17회 전국청년회 하계수련회(회장 이문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수련대회는 15일 밤 10시 회원등록을 완료하고 17일 새벽 3시30분부터 예불, 종정예하 친견, 적멸공참배, 종회의장 설법, 관음정진, 경내 환경수호활동, 108배 참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종단원(원장 인곡)은 6월 28일 봉원사에서 종정 보성스님, 국민회의 김상현 고문 등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예수시왕생전제를 봉행했다. <사진>

종단주최로 열린 이날 예수시왕생전제는 전통의식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인천·경기 사암 주지 및 신도들이 참여했다.

전대종

전국청년회 하계수련회

제17회 전국청년회 하계수련회(회장 이문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수련대회는 15일 밤 10시 회원등록을 완료하고 17일 새벽 3시30분부터 예불, 종정예하 친견, 적멸공참배, 종회의장 설법, 관음정진, 경내 환경수호활동, 108배 참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종지종

삼교천서 국난극복 법회

종무원(원장서리 법륜)은 6월 29일 삼교천에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한 기원법회 및 영산수륙대제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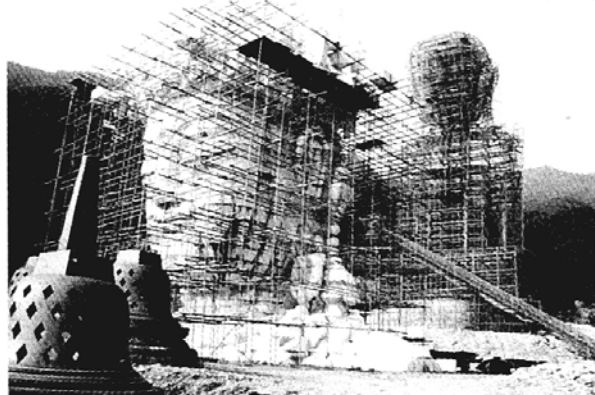
방승가소시

천태종 개산 1404년 기념 bh '소백에 뜬달' 방영

불교TV(사장 정우성)는 천태종 개산 1404주년을 맞아 조 선조부터 현재까지 한국 천태종의 세계를 조망한 다큐멘터리 '소백에 뜬달'을 10일 오전 11시10분부터 낮 12시까지 방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종주 '상월원각대조사'의 탄생과 열반 등을 드라마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현했다. 또 천태종의 본산인 단양 구인사와 도심 포교의 거점인 서울 관문사 등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중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도솔천사에서 조성중인 지장보살상(右)과 관세음보살상.

세계최대 지장불상 세운다

화악산 도솔천사 74m 높이 내년 완공

한국판 '보로부드르사원'

높이 74m의 세계최대 지장보살상이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넓이 43m, 높이 42m의 한국판 보로부드르사원도 재현되기 시작했다.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산에 소재한 대한불교법화종 도솔천사(주지 신홍)는 내년까지 일차 3만1천5백여평에 이르는 시설을 갖춘 세계 최대의 지장보살상을 완공할 계획이다. 지장보살상이 제모습을 드러내는 1차 불사가 회향되던 도솔천사는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불교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이 42m의 중앙열반탑과 도솔천당 4백32개, 해탈당 72개로 구성된 한국판 보로부드르사원은 인도네시아의 이국적인 탑과 형태의 사원으로서 남동아시아로 활용된다. 특히 중앙열반탑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타워형 대탑으로 꾸며진다.

8세기 중엽부터 9세기에 걸쳐 인도네시아에서 번영했던 불교왕국인 사일렌드라(Syailendra)왕조 시대에 건조된 보로부드르사원은 조상승배와 대승불교에서 가르치는 덕을 쌓기 위해서 당시의 지배자가 건조한

영묘(靈墓)로서 도솔천사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 80여인의 예상이 투입된 이 대불상은 불상조형업체에 의주를 주지 않고 신도10여명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 지난 공사에서부터 불상 모형 제작, 철조 구조물 공사 등을 자체기술로 시공하고 있다. 90년도부터 공사에 착공했으며, 지장보살상 조성은 3년전부터 시작했다.

특히 주지 신홍스님이 직접 불사의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감독하고 있어 주변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신홍스님은 내년까지 1차불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높이 60m의 관세음보살상(현재 두상이 원형크기로 제작된 상태)과 높이 108m의 석가모니불 조성, 그리고 중앙열반탑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불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지 신홍스님은 "현재 경제난 등으로 불사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1세기의 새로운 부처님 성지를 조성한다는 원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김주미 기자 <jkim@buddhopia.com>

태고종 총담대중사 소신공양

'색즉시공' 보인 무상설법 남북통일·불법 중흥 발원

구도자의 죽음은 일생을 바쳐 온 구도행의 가장 빛나는 정점이다.

태고종 승정 총담 원상대중사가 6월27일 새벽 경기도 청평 감로사에서 소신(燒身) 열반했다. (세수 85세 법랍 69세) 무명종생들을 위해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을 온 몸을 태워 버리는 결연한 법문으로 남기고 한 줄기 연기보다 이승의 인연을 마감 한 총담스님.

"호명산 감로사에 구름과 노닐던/ 이 노승은 본래 서원 성취코자/ 삼보전에 소신공양 올리나니/ 이 인연공덕으로 부처님의 자비은혜를 받고/ 국태민안하며 불법이 거둬/ 흥룡외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어떤 것이 혹은 것이나 물거든/ 다 응당히 주하는 바 없게 하라."

스님은 육신을 불사하는 큰 법문과 더불어 짧은 계승을 남김으로 탁발이 벗어내는 온갖 번뇌의 번거로움 속을 헤매이는 중생들에 대한 한없는 자비를 베풀었다. '남북통일과 중생구제, 불교중흥,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 종식'에 대한 스님의 간절한 염원, 육신을 태우는 고통을 달게 받아들인 스님의 그 결연한 서원을 만다라화로 꽃피우는 일은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29일 청평 감로사에서 영수된 영결식에서 태고종 승정 덕암스님은 "대중사의 가시는 길이 생사가 풀이 아님과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보여주는 무상의 설법"이라며 모든 후회와 신도들이 그 설법을 배속 깊히 아로새기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결식에 참석한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운재스님(승정) 우담(영수원장) 도성(등방대 총동원회장) 스님을 비롯

해 한나라당 불자회 회장 함종환 의원, 승가사 감로사 신도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은 "온 종생의 번뇌를 태워 버리는 대원행(大願行)을 보신 총담스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도 육신을 태우는 결기와 절실함으로 부처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며 호소했다.

스님의 소신열반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5월30일 단오절날 소신을 시도했으나 스님과 신도들이 만류로 실행치 못했으며 6월16일 태고종 승정으로 추대받고 "소신공양을 만류하지 않는다면 승정 추대의사를 받아들일 것이다"고 소신공양의 염원을 밝히기도 했었다.

96년 정토삼부경을 주석해 편찬한 <염불>의 서문에서도 "나의 몸을 온전히 불태워 부처님께 바치

는 소신공양을 통해 분단된 국토에서 활보고 괴로운 중생들의 고통을 지고 가겠다. 또한 불교중흥과 불교분규종식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 94호 지상법석, 168호 수행한담 참조>

17세에 출가해 서울 왕십리 승가사에서 수행을 해 오던 총담스님은 이날 새벽5시 감로사에서 참나무 더미에 기름을 붓고 소신공양(燒身供養)했다. 총담스님 문도회는 초대에서 6대까지는 승가사에서, 7대는 감로사에서 봉행키로 하고 감로사에 부도탑을 건립하고 소신한 곳에 기념비를 세울 계획 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지난달 27일 새벽5시 감로사에서 결행

조계·태고종 화합 염원



◇종중 재로 남은 총담스님의 법구가 '말 없는 법문'을 들려주는 듯 하다. 원내는 총담스님 생전 모습.

소신공양이란

소신공양(燒身供養)은 말 그대로 스스로 몸을 태워 부처님께 바치는 것으로 부처님 전성이야기에 서 실재되고 있다.

소신공양에 대한 불교적 근거는 <법화경> 약왕보살분사품 제 23 '일체중생 회견보살에서 일일정명덕 부처님 회상에서 수행정진할 때 현일체복신상(現一切佛三昧)을 증득하여 육신으로 공양할 을 서원하고 향유(香油)를 몸에 바르시고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옷으로 몸을 감아 거기에 향유를 끼얹고 몸을 스스로 태워 공양을 올려 불은(佛眼)에 보답하

스스로 온 몸 불태워 삼보에 공양

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사에서는 소신공양에 대한 의지와 정신을 보인 몇몇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질 뿐, 50여년 전 영도사(지음)의 개운사)의 한 노승님이 칠성각 앞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피고 소신공양을 시도했으나 그 손잡이가 붙어내려 깊은 화상을 입고 뜻을 펴지 못한 채 열반했다. 일제 때 통도사에서 한 스님이 소신공양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건봉사사적기>에서도 만일열반에 참여

한 31인의 스님과 소신대(燒身臺)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소신을 했다는 얘기는 없다.

60년대에는 반정부 시위를 벌이던 베트남의 광복 스님이 대토상에서 좌선하며 소신해 세계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김동리의 소설 '동신불'과 현재 중국 구화산 등에 전하는 4구의 동신불은 소신공양과 다소 차이가 있다. 소신공양은 몸을 태워 형상을 남기지 않지만 동신불은 육신을 그대로 보존하는 '육신불'이기 때문이다. 드필선 기자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는(자연형) 테크핀과 멘틀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항비를 신원형(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물성분의 성분이 신원형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체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줍니다. 항비는 자연형인 피톤치드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세포 유지를 촉진시켜줌으로써 미모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형(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로스타틴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스타틴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히 착용하면, 침의 효능, 침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좌우가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대 및월경이 고통적이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인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바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담노나 감성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체형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거기가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이든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 병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항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병제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배꼽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항비팩을 배꼽(신원형)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랄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항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항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서초구 김이진)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책자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상의 상자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11.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12. 이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 천도의 중요성"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책자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0.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